



## ‘초콜릿 아트’ 눈으로 느끼세요

ショコラティエ 여희진 씨

‘빠드두 초콜릿 학원 광주’ 오픈… 12~17일 신세계백화점 전시

“초콜릿 콘서트 등 문화행사 기획… 디저트 문화 발전시킬 것”

갈색 조각상을 한참 동안 들여다 봤다. 섬세하게 조각된 작품의 재료는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 발렌타인 데이 등 특별한 날에 선물하거나, 디저트로 먹는 초콜릿이 조각 작품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초콜릿으로 의상 만들기도 한다.

‘초콜릿 아트’라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여희진(30)씨는 쇼콜라티에다.

쇼콜라티에(chocolatier)는 파티쉐나 바리스타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다. 초콜릿의 프랑스어인 쇼콜라에서 파생된 용어로 초콜릿 공예가를 뜻하며 영어로는 초콜릿 아티스트(chocolate artist)라고도 부른다.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가지고 블랜딩 등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맛과 풍미를 내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이다.

광주여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여씨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 취미로 초콜릿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초콜릿을 배운 곳은 서울의 초콜릿 공방 빠드두(Pas de deux). 광주 출신으로 국내 쇼콜라티에 1호로 알려진 김성미씨가 2003년에 오픈한 한국의 첫 초콜릿 공방이다.

처음에는 재미로 배웠다. 과정도 어렵지 않았고 흥미가 있었다. 하지만 점차 어려워

바리스타와 파티쉐라는 직업이 좀 더 친근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한층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에 있다.

여씨는 초콜릿과 문화를 접목한 행사를 꿈꾸고 있다. 예를 들면 ‘초콜릿 콘서트’ 같은 것. 전시회와 음악회 그리고 다양한 초콜릿 음식을 나눠 먹는 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초콜릿 문화 확산을 위해 여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빠드두 초콜릿 학원 광주’를 오픈했다. 광주에 처음 등장한 초콜릿 관련 학원으로 웰빙 음식 열풍과 카카오수입, 초콜릿 전문점 등이 증가하면서 ‘수제 초콜릿’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전의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특히 초콜릿은 특별한 조리 기구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접근하기도 쉽다.

기념일 선물, 가족을 위한 디저트 등을 만들어보는 원데이 클래스(2~4시간)와 취미 클래스(4주 과정)를 운영하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이들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클래스(12주 과정)를 진행중이다.

여씨는 “초콜릿을 제과 제빵의 한 분야가 아니라 단독적인 한 장르로 만들고 싶다”며 “초코리움 중심으로 지역의 디저트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www.chocolatier062.com. 문의 062-384-3693.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현대인의 닫힌 속내를 드러낸다

미디어아티스트 조용신 개인전, 12~18일 은암미술관

미디어아티스트 조용신씨가 12~18일 은암미술관에서 ‘X-BOX STORY’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조씨는 이번 전시에서 프로젝션 영상 등을 이용한 입체영상 설치작품 8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내부에 영상장치를 설치한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나무박스를 전시장 곳곳에 전시했다. 박스에 붙은 수화물 운송딱지는 이 박스가 타국으로부터 도착한 운송 수화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박스 속에는 삶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 각각의 인물이 입체영상으로 등장한다. 검은 박스에서는 인물과 배경, 주변의 분위기가 기묘한 3D입체영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인간의 삶을 공간적, 시간적, 입체적으로 느끼도록 했다.

작가는 “운송 수화물은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한다. 현대인의 닫힌 개인의식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싶었



‘X-BOX STORY’

다”고 말했다.

홍의대 미대를 졸업하고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조씨는 파리 레페리드 칼베르 화랑에서 전속 작가로 활동하면서 파리 국립미술관 풍피두 센터에서 ‘예술의 경계’ 전을 열기도 했다. 현재 조선대 미대 관화미디어전공 학과장으로 재직중이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공연작 20개 선정

3월28일 ‘박종화와 재즈의 밤’ 첫 공연

2013년도 광주문화재단 기획 공연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에 오를 20개 공연 작품이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공연작품 공모 결과 77팀이 접수, 이 가운데 20팀을 올해 목요상설무대 출연진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무대는 오는 3월28일 오후 7시30분 ‘박종화와 재즈의 밤’이 장식한다.

선정 작품은 다음과 같다.

▲박종화와 재즈의 밤 ▲선클라비어 Story of Piano ▲더 싱어즈 사랑하는 사람에게 ▲NDL KOREA COMPANY 댄스 페스티벌 ▲전통민속예술단 라운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 ▲피아스트라 모차르트로 힐링되다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독창회 ▲이상록 피아노를 노래하다 ‘파야노 음악의 멜랑콜리’ ▲흥양예술단 단막극 ‘심청전’ ▲베이시스 플롯 양상불 DOPPLERIADE II ▲M댄스 아카데미 2013 아이 러브 라인! ‘댄싱 캣’ ▲정통 원전음악 양상불 알텐 바움 ▲



‘무지크바움 양상불’

무지크바움 양상불 연주회 ▲우물안개구리 그리고 Busking ▲꽃고을 무등가아금연주단 아리랑 힐링 ▲한마음중창단 한마음 하망 콘서트 ▲피아스트라 모차르트로 힐링되다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 독창회 ▲이상록 피아노를 노래하다 ‘파야노 음악의 멜랑콜리’ ▲흥양예술단 단막극 ‘심청전’ ▲베이시스 플롯 양상불 DOPPLERIADE II ▲M댄스 아카데미 2013 아이 러브 라인! ‘댄싱 캣’ ▲정통 원전음악 양상불 알텐 바움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GFN 광주영어방송 소년소녀영어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GFN 광주영어방송 소년소녀영어합창단’이 광주지역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신입단원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며 가창 심사와 영어면접으로 이뤄지는 실기전형은 22일 오후 2시 광주영어방송 1층 공개홀에서 치러진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

주영어방송 홈페이지([www.gfn.or.kr](http://www.gf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월 창단한 ‘GFN 소년소녀 영어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공개방송 출연 및 각종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460-0953./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http://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頓(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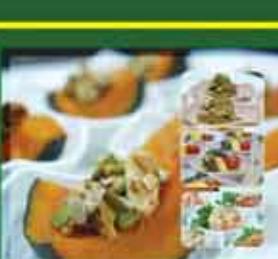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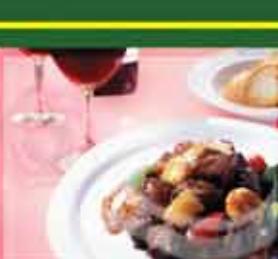
본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충장점 062)227-9970  
장충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국제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제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공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